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제86차 CATI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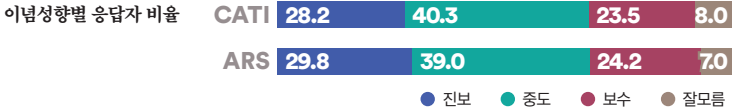
제101차 ARS조사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CATI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성별			지역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전체			1003		100.0	1003	100.0	1.00						
성별	남성		499	49.8	496	49.5	0.99							
	여성		504	50.2	507	50.5	1.00							
연령	18-29세		159	15.9	157	15.7	0.98							
	30대		150	15.0	149	14.9	0.99							
	40대		179	17.8	177	17.6	0.98							
	50대		199	19.8	197	19.6	0.98							
	60대		174	17.3	175	17.4	1.00							
	70세 이상		142	14.2	148	14.8	1.04							
지역	서울		189	18.8	187	18.6	0.98							
	인천·경기		320	31.9	322	32.1	1.00							
	대전·세종·충청		109	10.9	108	10.8	0.99							
	광주·전라		97	9.7	98	9.8	1.01							
	대구·경북		96	9.6	97	9.7	1.01							
	부산·울산·경남		150	15.0	149	14.9	0.99							
	강원·제주		42	4.2	42	4.2	1.00							

49.8%
남성

50.2%
여성

18.8%

31.9%

10.9%

9.6%

9.7%

15.0%

4.2%

ARS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성별			지역	
표본크기	1,002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02	100.0	1002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519	51.8	495	49.4	0.95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여성	483	48.2	507	50.6	1.04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9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림가중)		연령	18~29세	114	11.4	157	15.7	1.37					
응답률	2.0% [총 통화시도 50,356명]			30대	137	13.7	149	14.9	1.08					
조사기간	2024년 10월 11일 ~ 10월 12일(2일간)			40대	191	19.1	177	17.7	0.92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214	21.4	197	19.7	0.92					
				60대	189	18.9	174	17.4	0.92					
				70세 이상	157	15.7	148	14.8	0.94					
			지역	서울	188	18.8	187	18.7	0.99	지역			4.2%	
				인천·경기	327	32.6	322	32.1	0.98					
				대전·세종·충청	106	10.6	107	10.7	1.00					
				광주·전라	99	9.9	98	9.8	0.98					
				대구·경북	95	9.5	97	9.7	1.02					
				부산·울산·경남	145	14.5	149	14.9	1.02					
				강원·제주	42	4.2	42	4.2	1.00					

51.8%
남성

48.2%
여성

18.8%

32.6%

10.6%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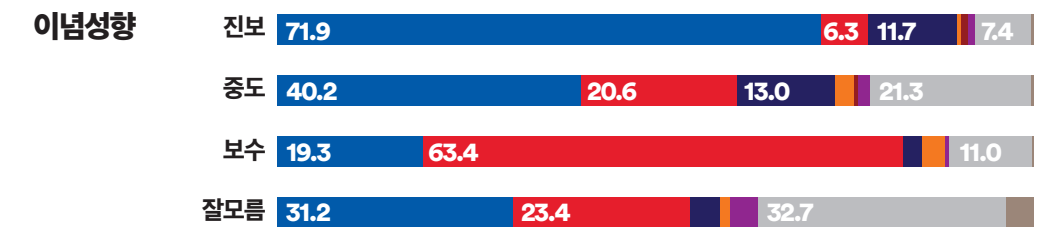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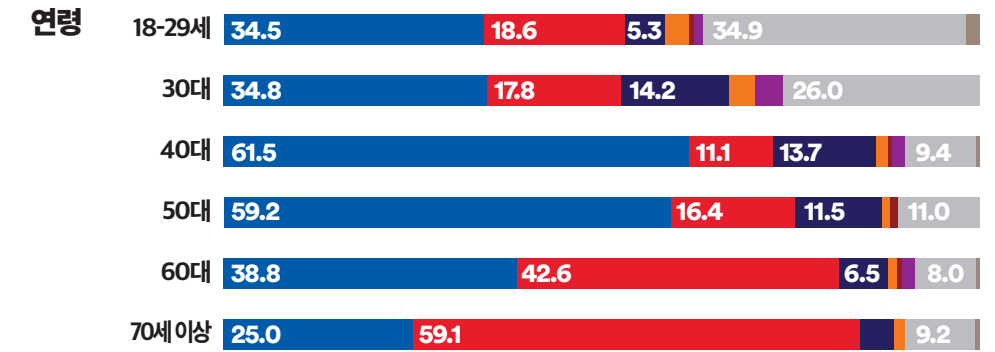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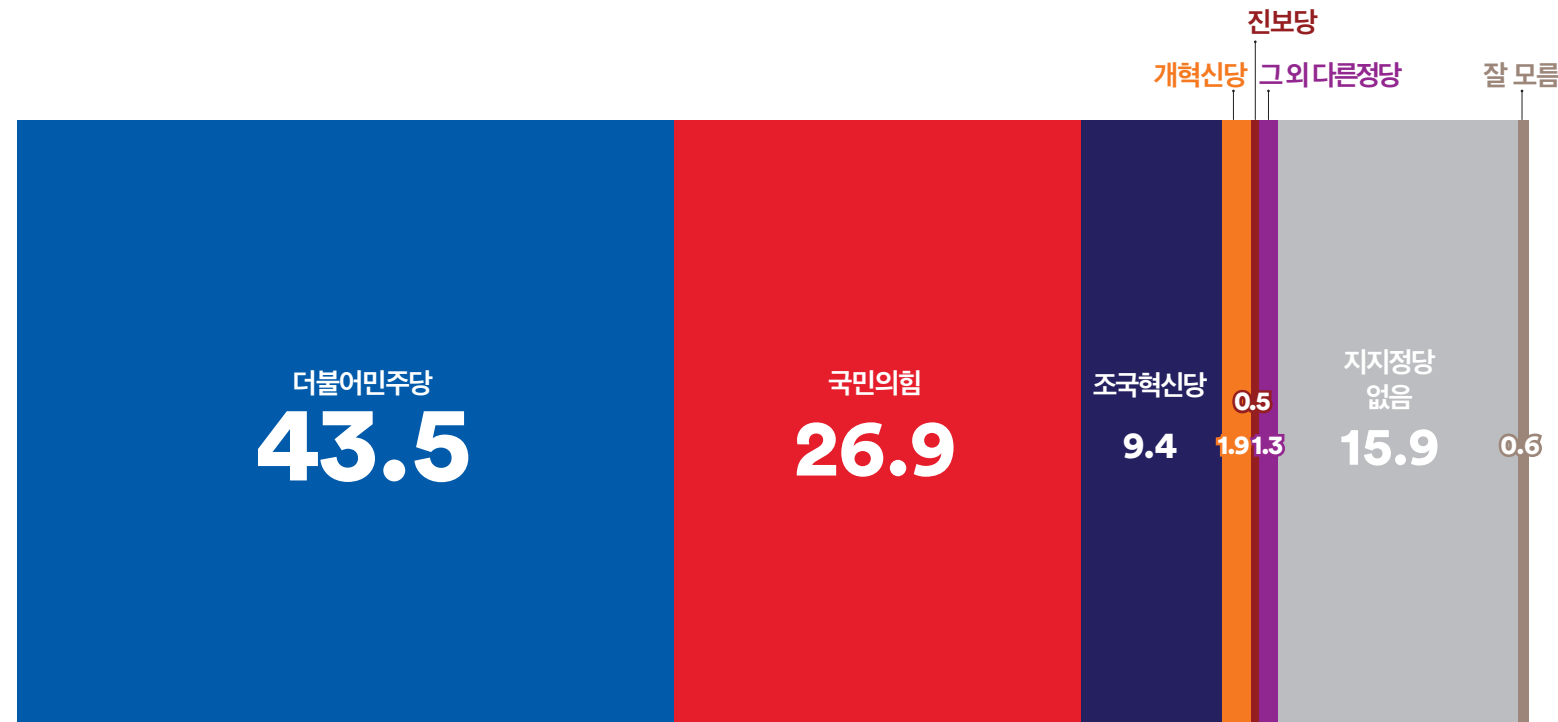
9.9%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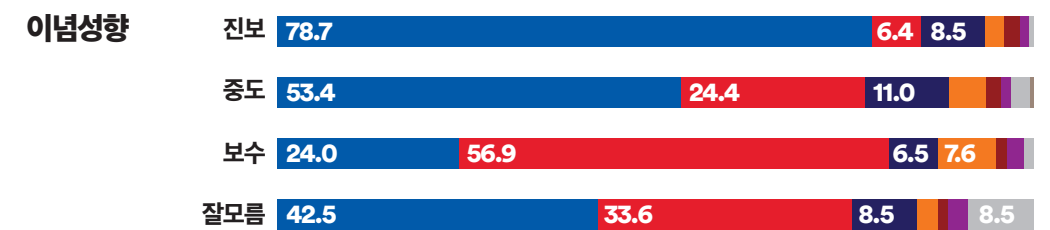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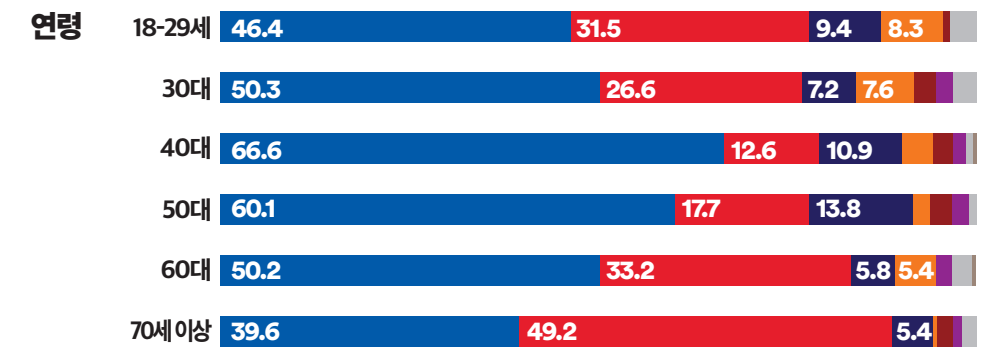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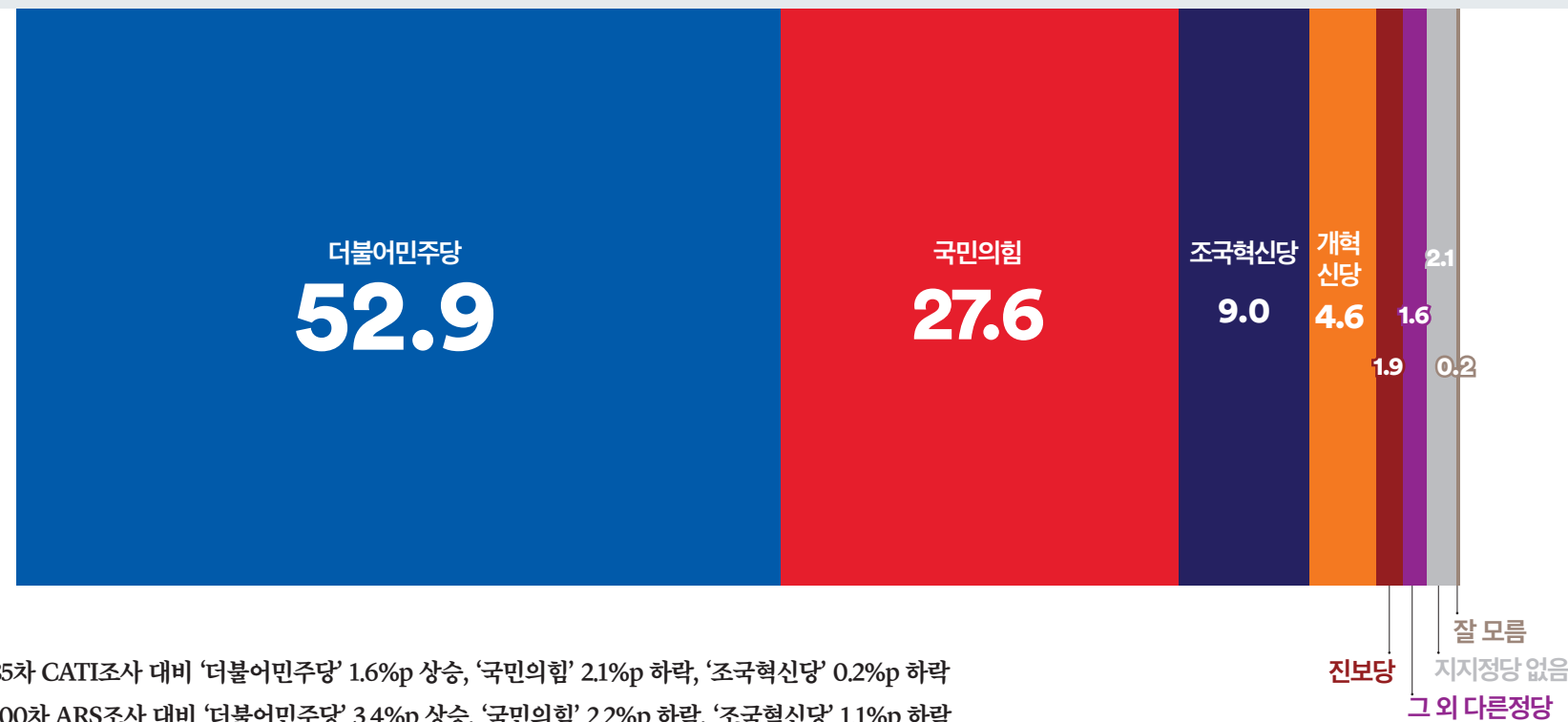
4.2%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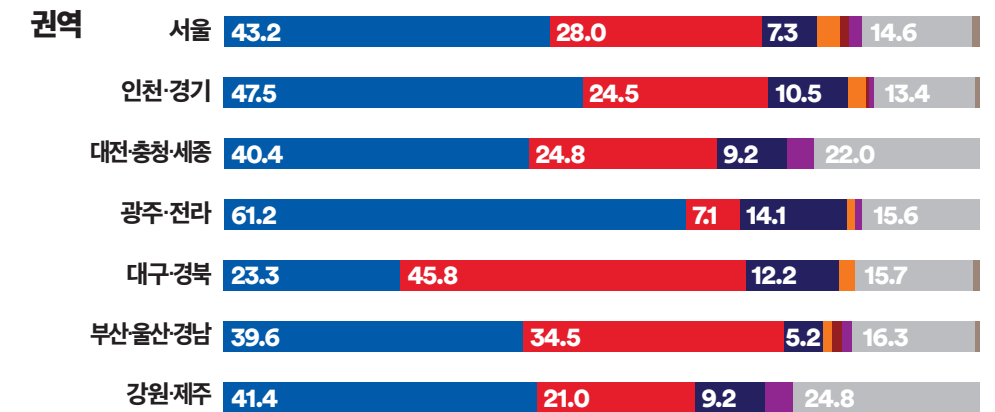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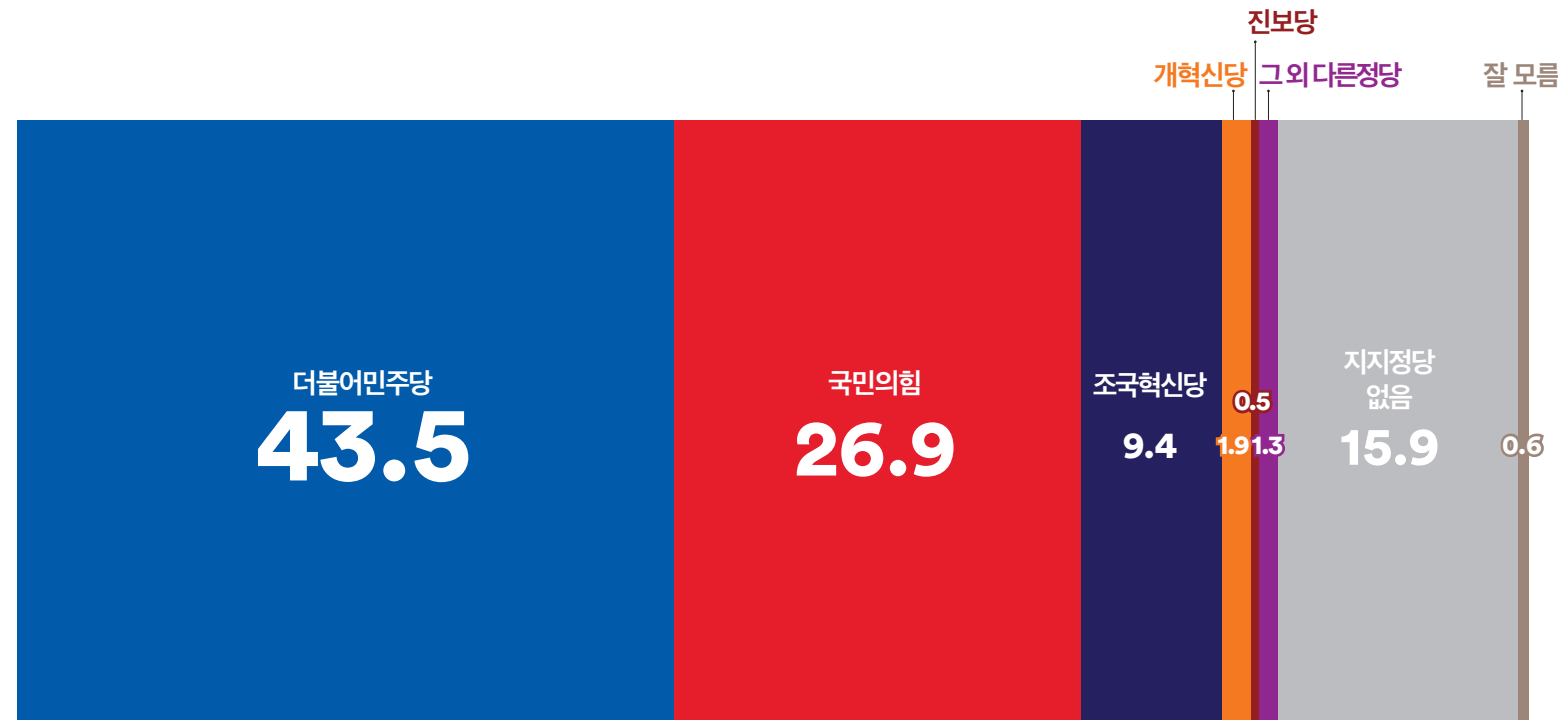


85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6%p 상승, '국민의힘' 2.1%p 하락, '조국혁신당' 0.2%p 하락
 100차 ARS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3.4%p 상승, '국민의힘' 2.2%p 하락, '조국혁신당' 1.1%p 하락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CATI 16.6%p, ARS 25.3%p(지난 조사: CATI 12.9%p, ARS 19.7%p)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CATI 26.0%p, ARS 34.3%p(지난 조사: CATI 22.5%p, ARS 29.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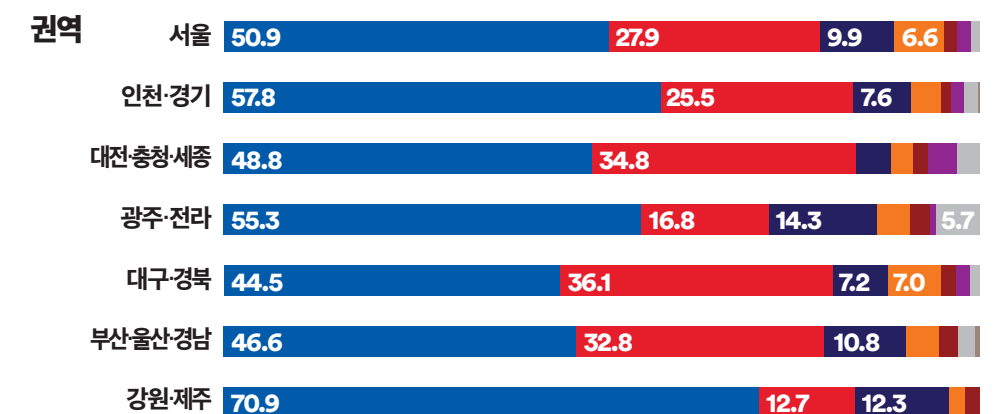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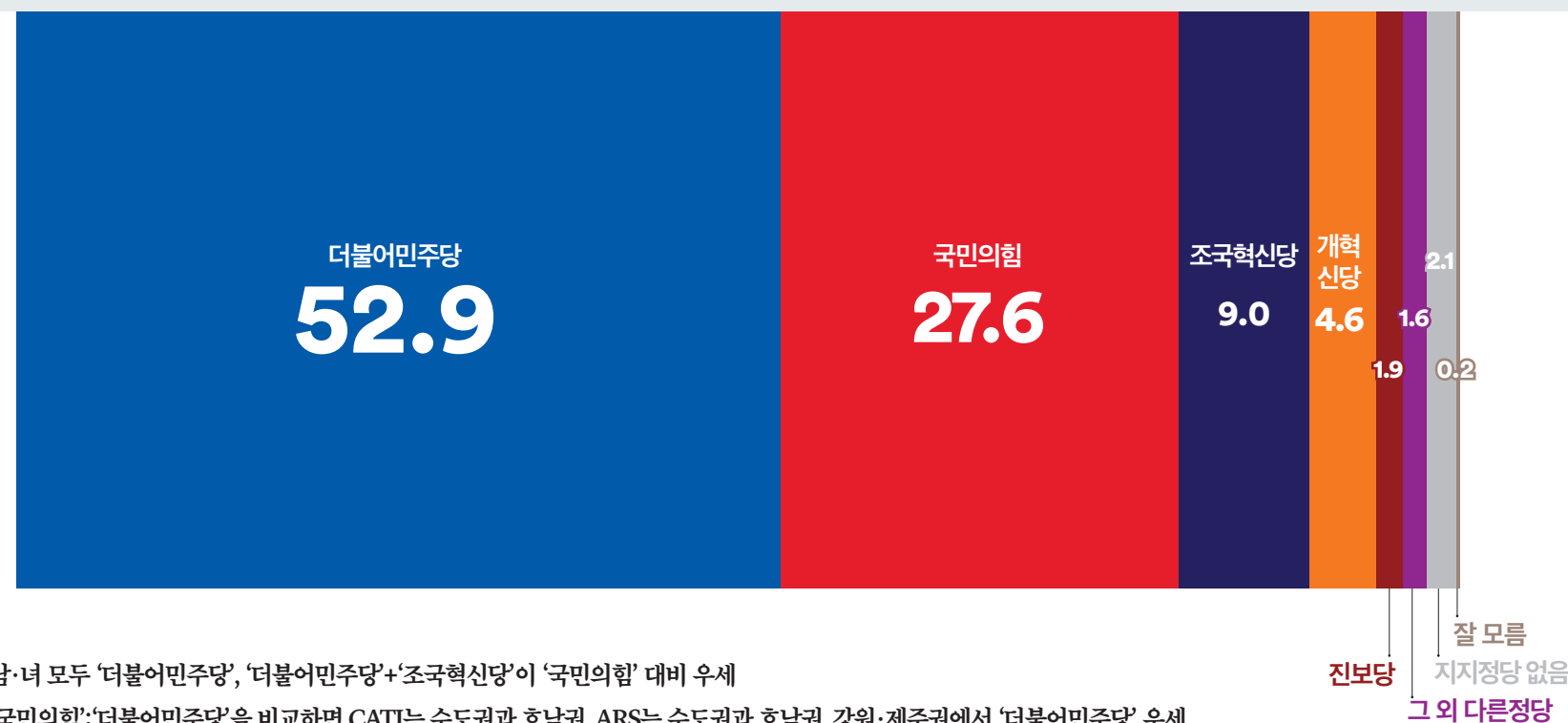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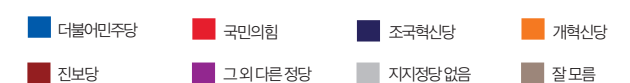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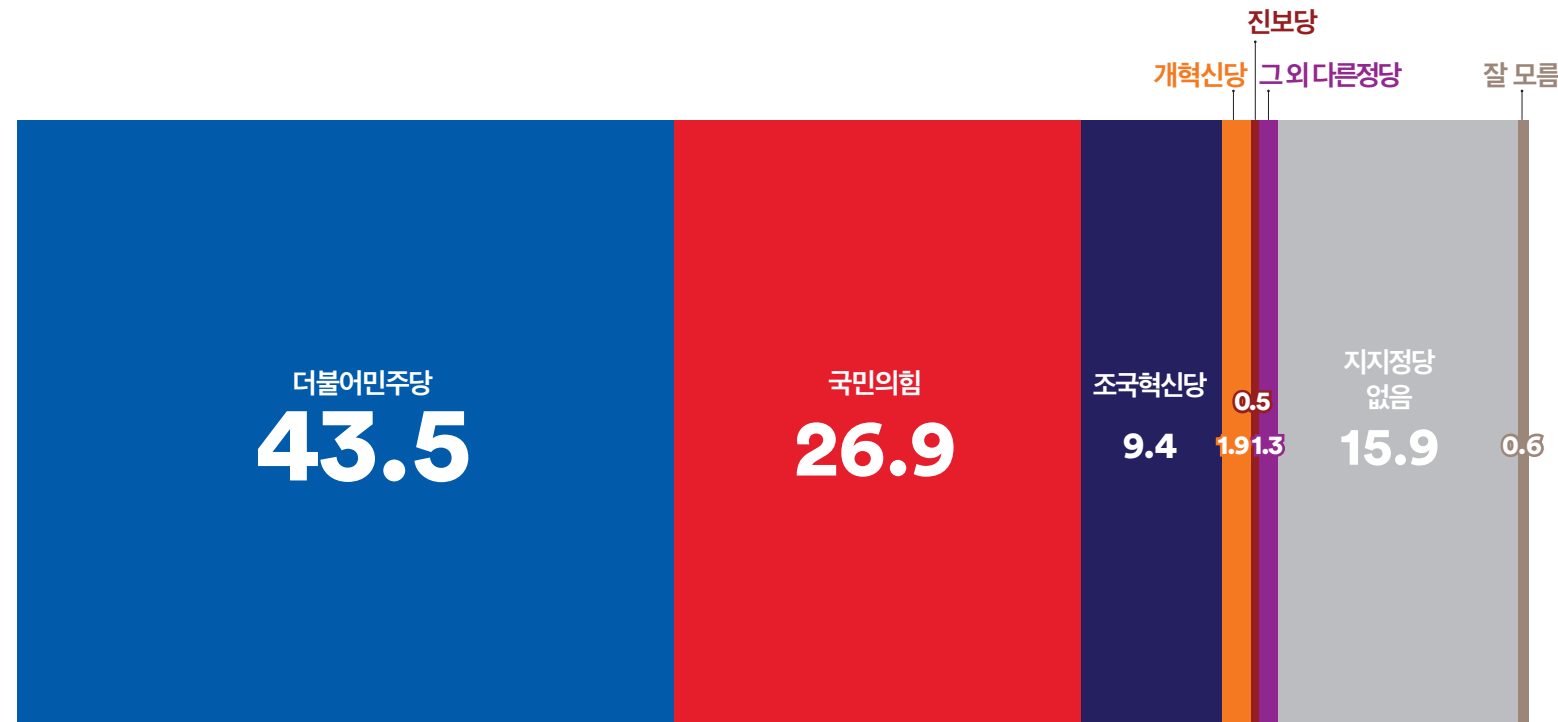


남·녀 모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대비 우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하면 CATI는 수도권과 호남권, ARS는 수도권과 호남권, 강원·제주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을 비교하면 CATI조사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ARS조사는 충청권과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우세
 두 조사 모두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만 '국민의힘' 앞서거나 우세, CATI조사는 50대 이하 응답층, ARS조사는 60대 이하 응답층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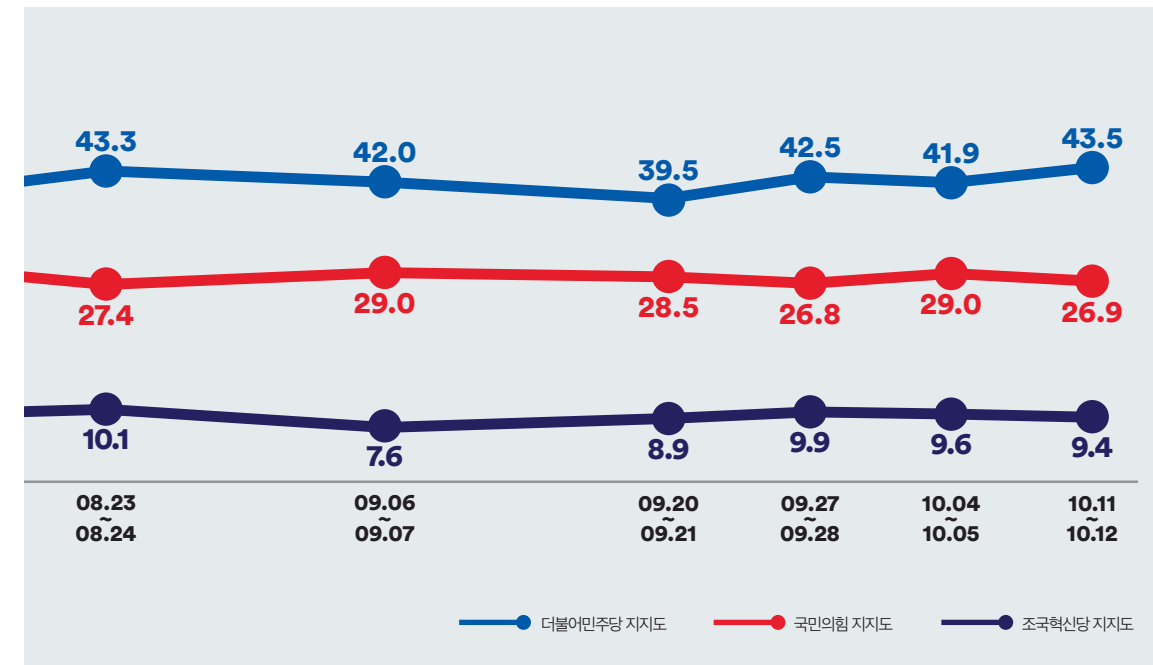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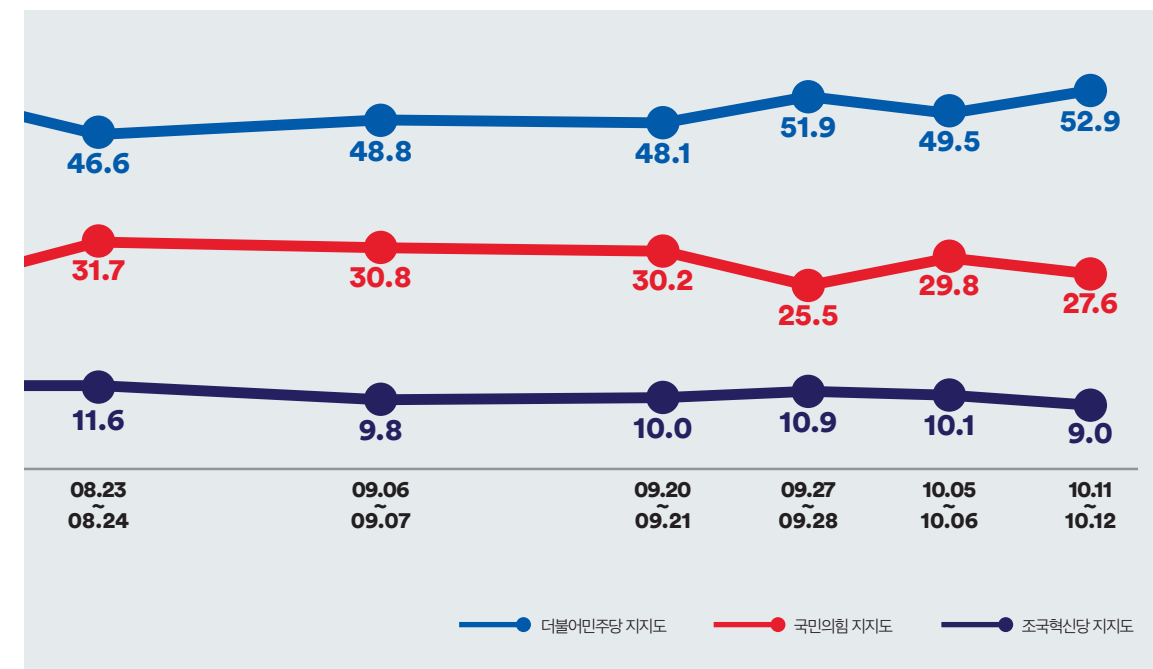
CATI



주차별
정당지지도



ARS



CATI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0.2%, '국민의힘' 20.6%, '조국혁신당' 13.0%의 지지율을 보임

ARS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53.4%, '국민의힘' 24.4%, '조국혁신당' 11.0%의 지지율을 보임

중도층에서의 양 세력('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간 지지율 격차는 CATI 32.6%p(85차: 31.8%p), ARS 40.0%p(100차: 33.0%p)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잘못하고 있다

80.0

잘못하고 있다

56.1

잘 모름
잘 모름

66.4

매우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74.7

잘못하는 편이다

23.9

잘하는 편이다

15.2

매우 잘하고 있다

4.0

13.3

매우 잘하고 있다

11.0

잘하는 편이다

8.3

잘못하는 편이다

ARS

잘하고 있다

24.2

지난 85차 CATI조사 대비 '긍정' 평가 4.5%p 하락, '부정' 평가 4.0%p 상승(격차 60.8%p)

지난 100차 ARS조사 대비 '긍정' 평가 1.8%p 하락, '부정' 평가 1.7%p 상승(격차 50.5%p)

두 조사의 모든 권역, 남·녀 모두, 60대 이하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 우세, 70세 이상에서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비슷한 비율

두 조사의 중도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우세하고, 평가 간 격차는 CATI 69.0%p(지난 조사: 68.5%p), ARS 55.0%p(지난 조사: 58.2%p)

성별

남성

77.8

21.6

-4.0

17.6

81.4

여성

74.2

25.7

-4.9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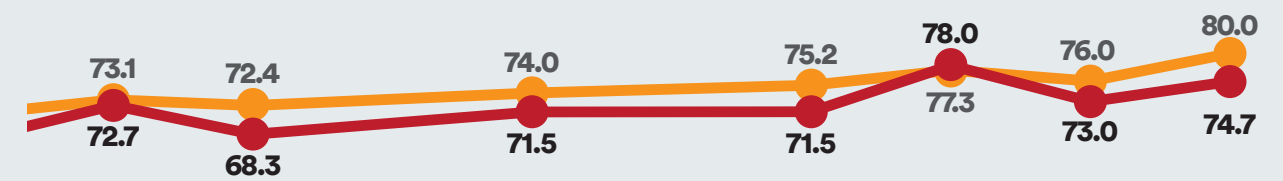
78.6

85차 CATI조사

격차

86차 CATI조사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성별

남성

76.1

23.5

+0.2

23.7

75.2

여성

70.1

28.5

-3.8

24.7

74.3

100차 ARS조사

격차

101차 ARS조사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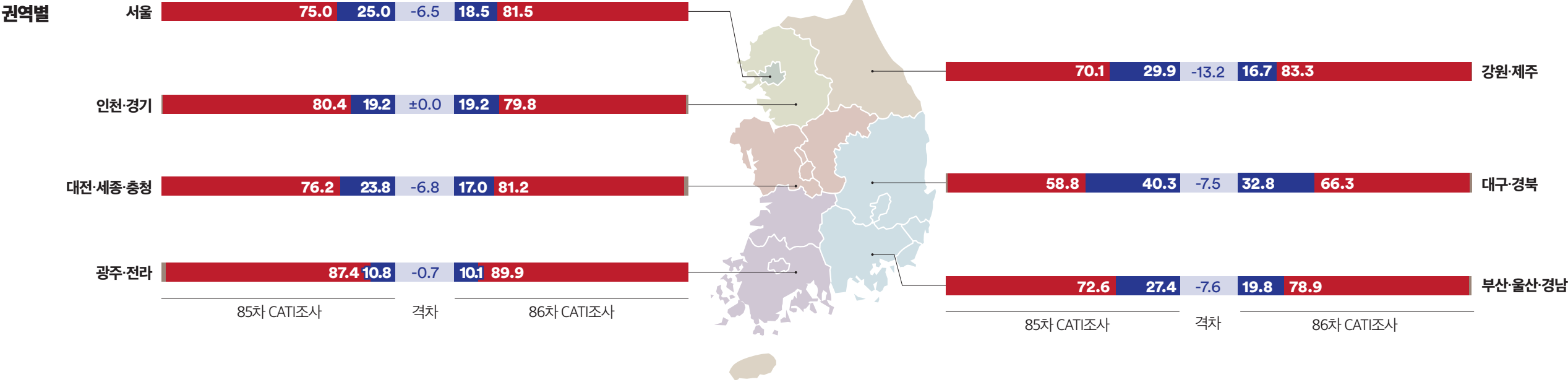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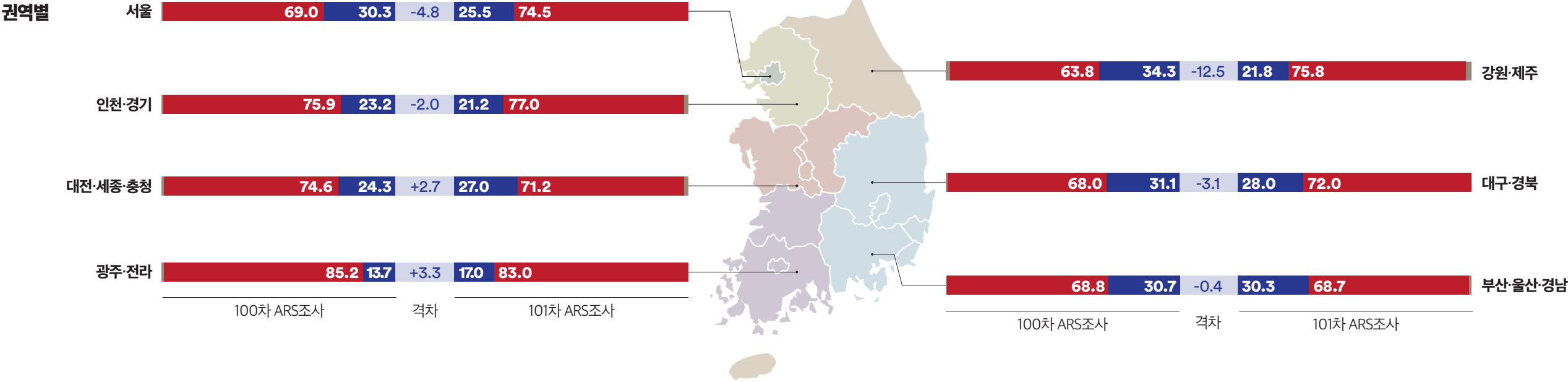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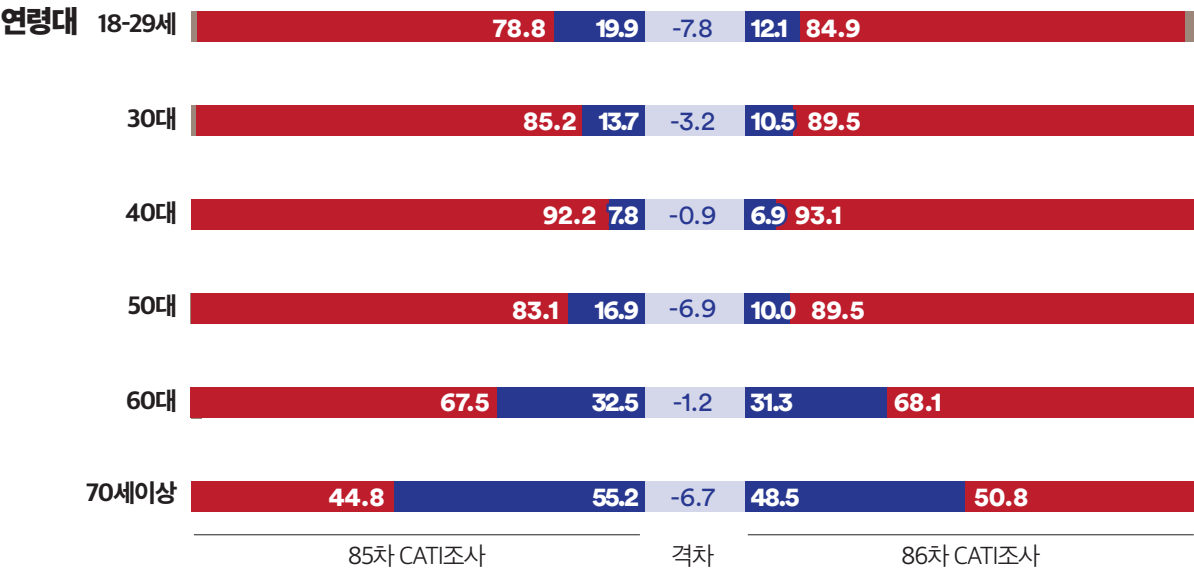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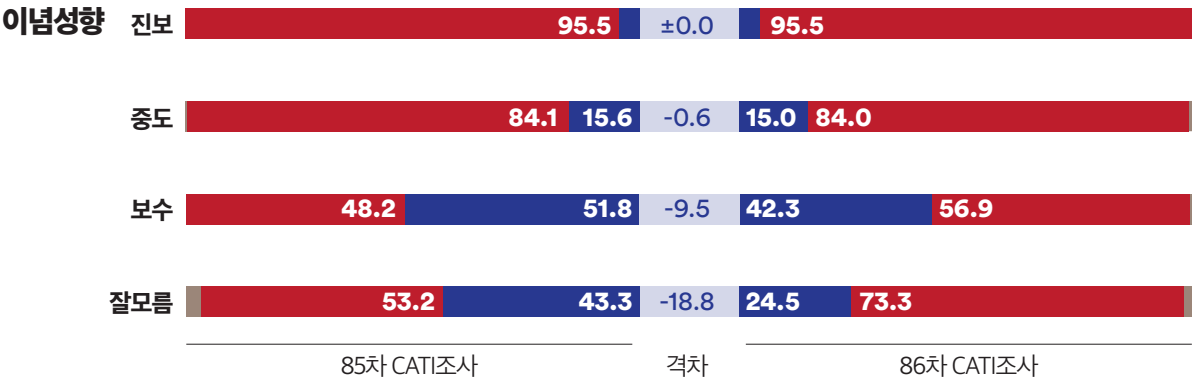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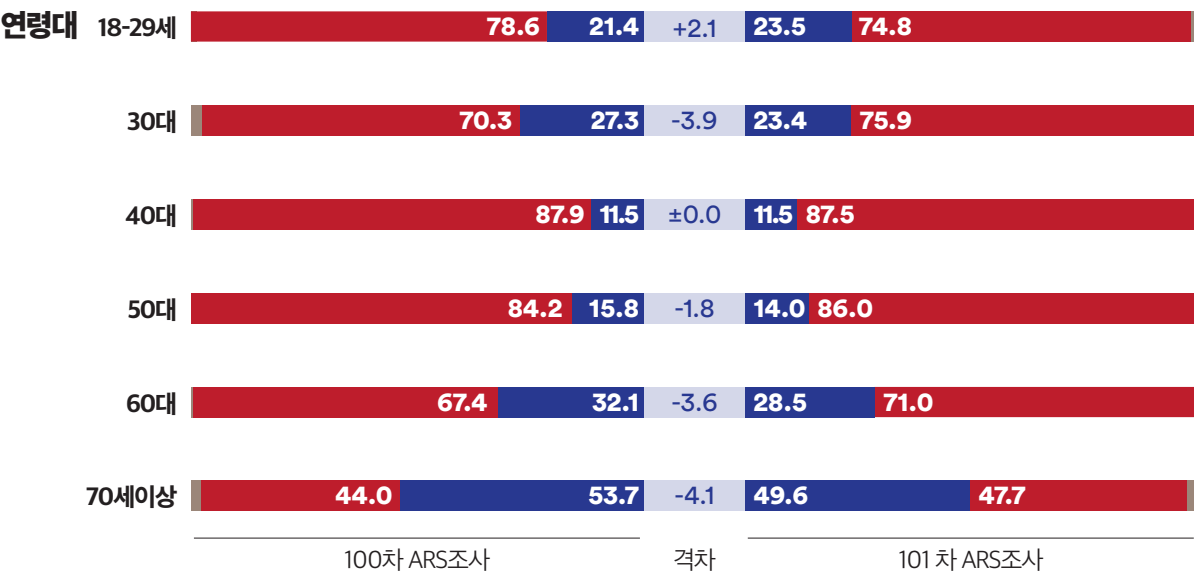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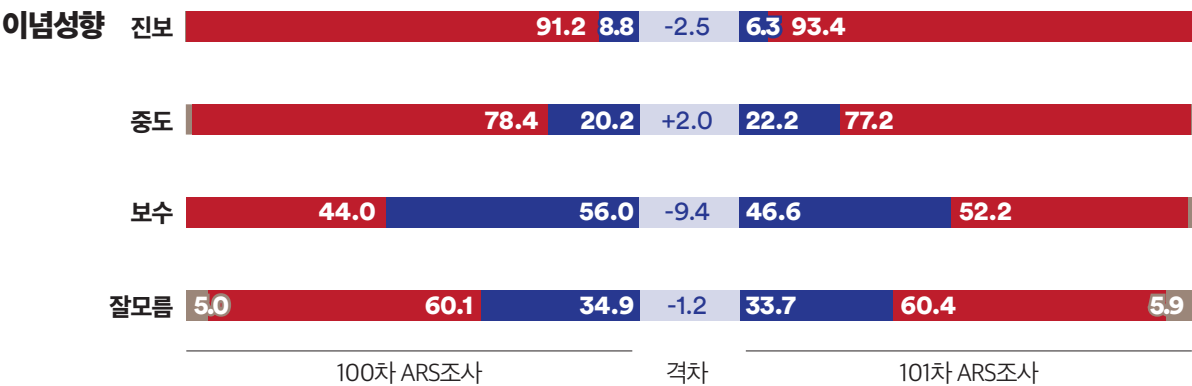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명태균 씨의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했던 강모 씨가 “22년 김영선 재보선 공천은 명태균 씨가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를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3억 6천 만원을 사실상 대신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저희가 대선 조사를 할때 2월28일부터 3월8일까지 면밀조사를 해서 3000개에서 5000개 샘플로 조사를 해서 매일매일 윤 대통령 쪽에 보고를 한다고 명태균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하고.”

“정산내역서를 뽑아놔라. 돈 받아올게해서, 3월20일경 내역서를 만든 거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셨는데.”

“금액이 3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돈은) 못받아왔습니다. 갑자기 의창구에 보궐선거가 생기니 의창구로 가야된다.”

“제가 결론적으로 봤을때 여론조사 비용 대가가 김영선 공천인 거예요”

[2024년 10월 6일 스피스에 출연한 강해경 씨의 주장 발췌]

ARS

사실일 것이다
53.9

사실이 아닐 것이다

21.9

잘 모름

24.2

56.4

사실일 것이다

사실이 아닐 것이다

18.9

잘 모름

24.7

‘국민의힘 김영선 재보선 공천은 명 씨가 윤 후보를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의 대가라는 주장’에대한 의견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응답간 격차: CATI 32.0%p, ARS 37.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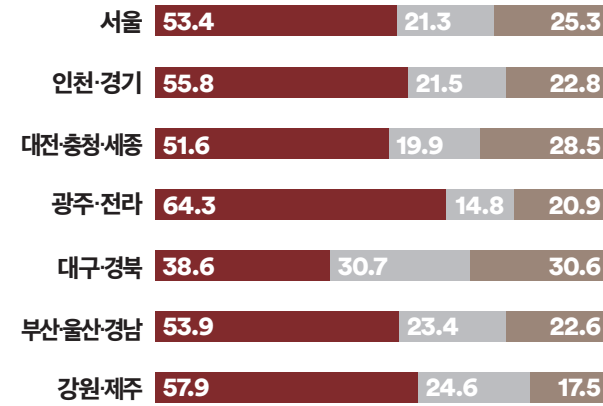
CATI조사는 TK외 모든 권역, ARS조사는 모든 권역에서 ‘사실일 것’이란 응답 우세

두 조사 모두 70세 이상 응답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사실일 것’이란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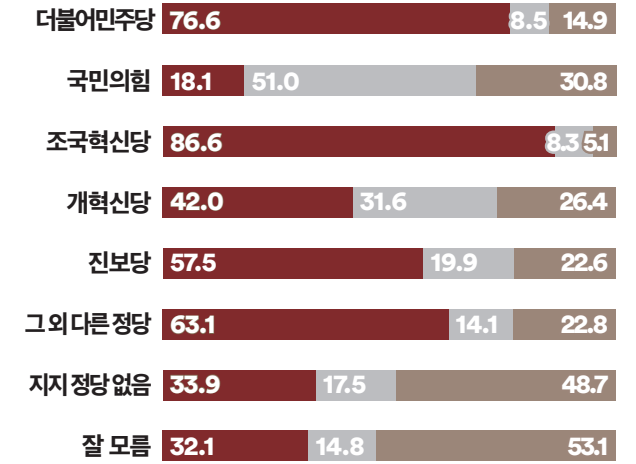
70세 이상 응답층과 보수층의 경우, ‘사실이 아닐 것’이란 응답이 CATI조사에서는 우세하고 ARS조사에서는 비슷하거나 소폭 앞서는 정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응답(응답간 격차: CATI 32.9%p, ARS 37.1%p)

권역



정당지지도



성별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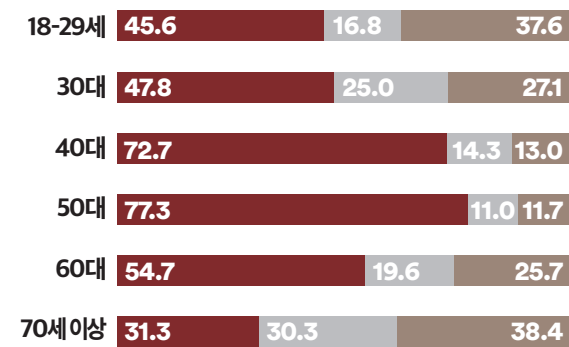
남성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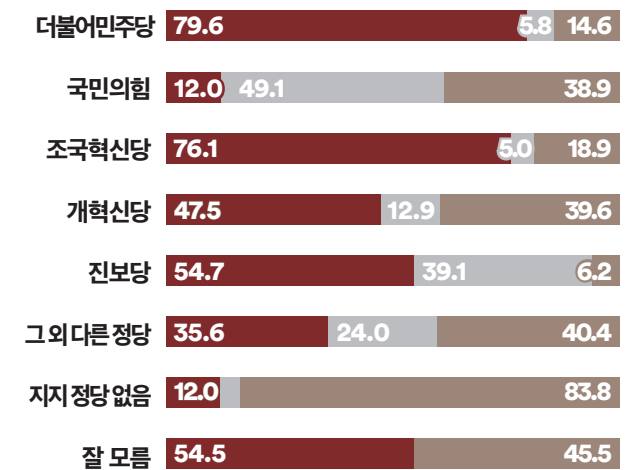
여성

여성

연령



정당지지도



■ 사실일 것이다 ■ 사실이 아닐 것이다 ■ 잘 모름



Q.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 시절 자택에 여러 번 갔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2021년 7월 국민의힘 인사가 데리고 와서 자택에서 2번 봤고 경선 이후에는 연락을 끊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CATI

“아크로비스타 들어가면 대통령 집을 열어보면 개가 한 마리 묶여 있어요. 그 집 구조를 진짜 내가...”

“대통령하고 그냥 주고받고 주고받고 텔레하고 (여사와) 수시로 통화했잖아. 한 달에 한두 번 이런 식으로...”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안 나온 거야 지금. 그러다가 입 열면 진짜 뒤집히지”

[10월 9일, JTBC의 명태균 씨 인터뷰 보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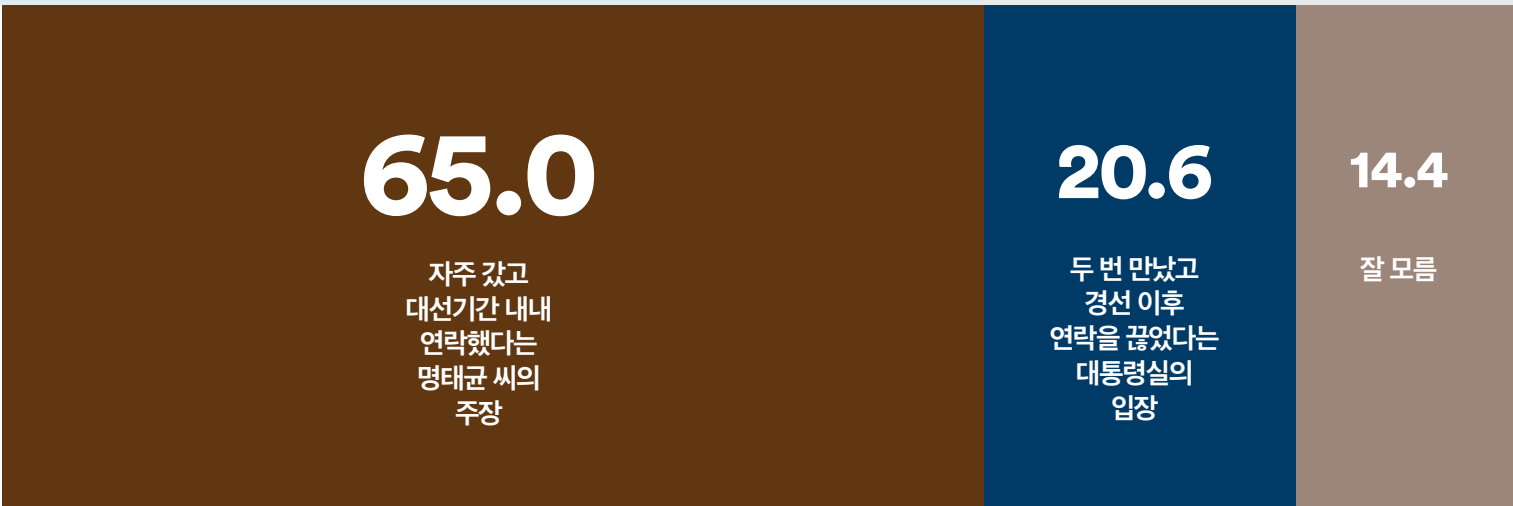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것”

[명태균 씨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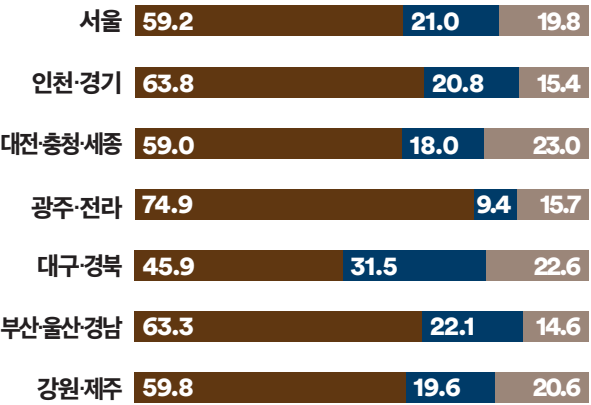
5명중 3명은 ‘윤 후보 시절 자택에 여러번 갔다는 명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생각(응답간 격차 CATI 40.9%p, ARS 44.4%p)

CATI 조사에서는 TK 외 모든 지역, ARS조사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명 씨의 주장을 믿는 비율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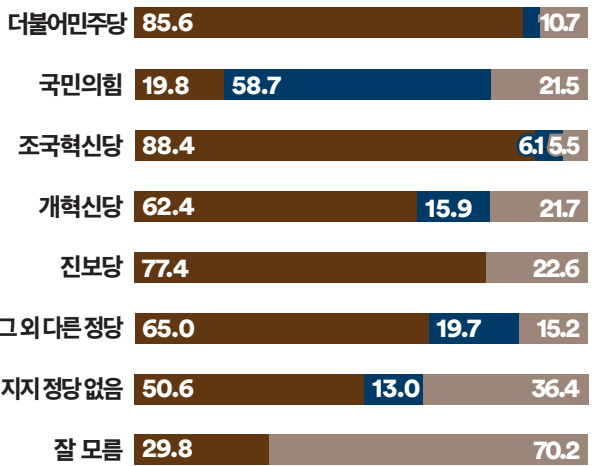
두 조사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두번 만났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사실’이란 응답이 우세(격차: CATI 38.9%p, ARS 46.0%p)

두 조사의 진보층과 중도층, 6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명 씨의 주장이 사실일 것’이란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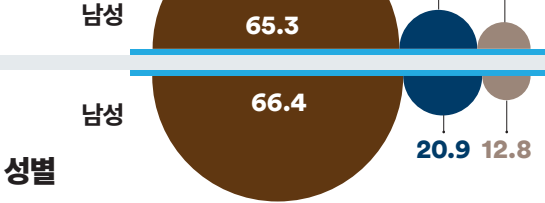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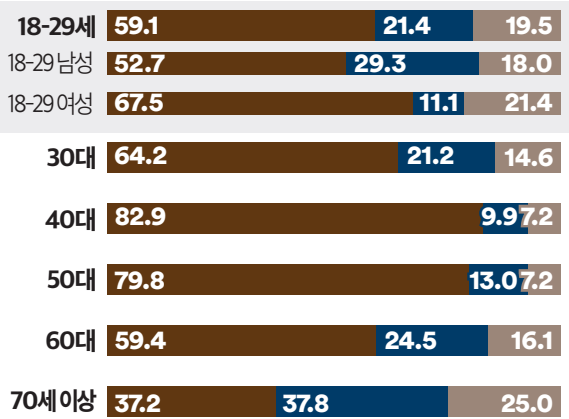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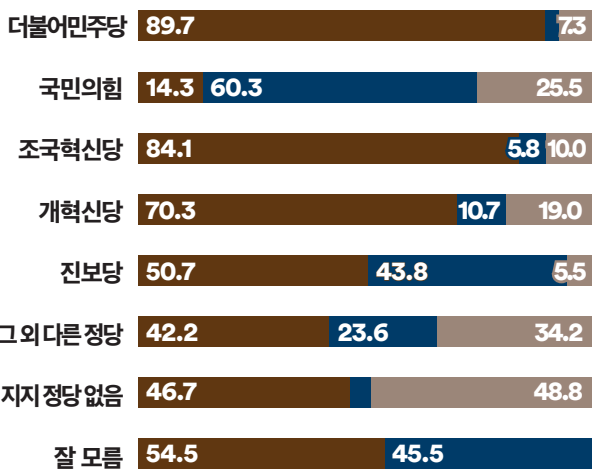
성별



연령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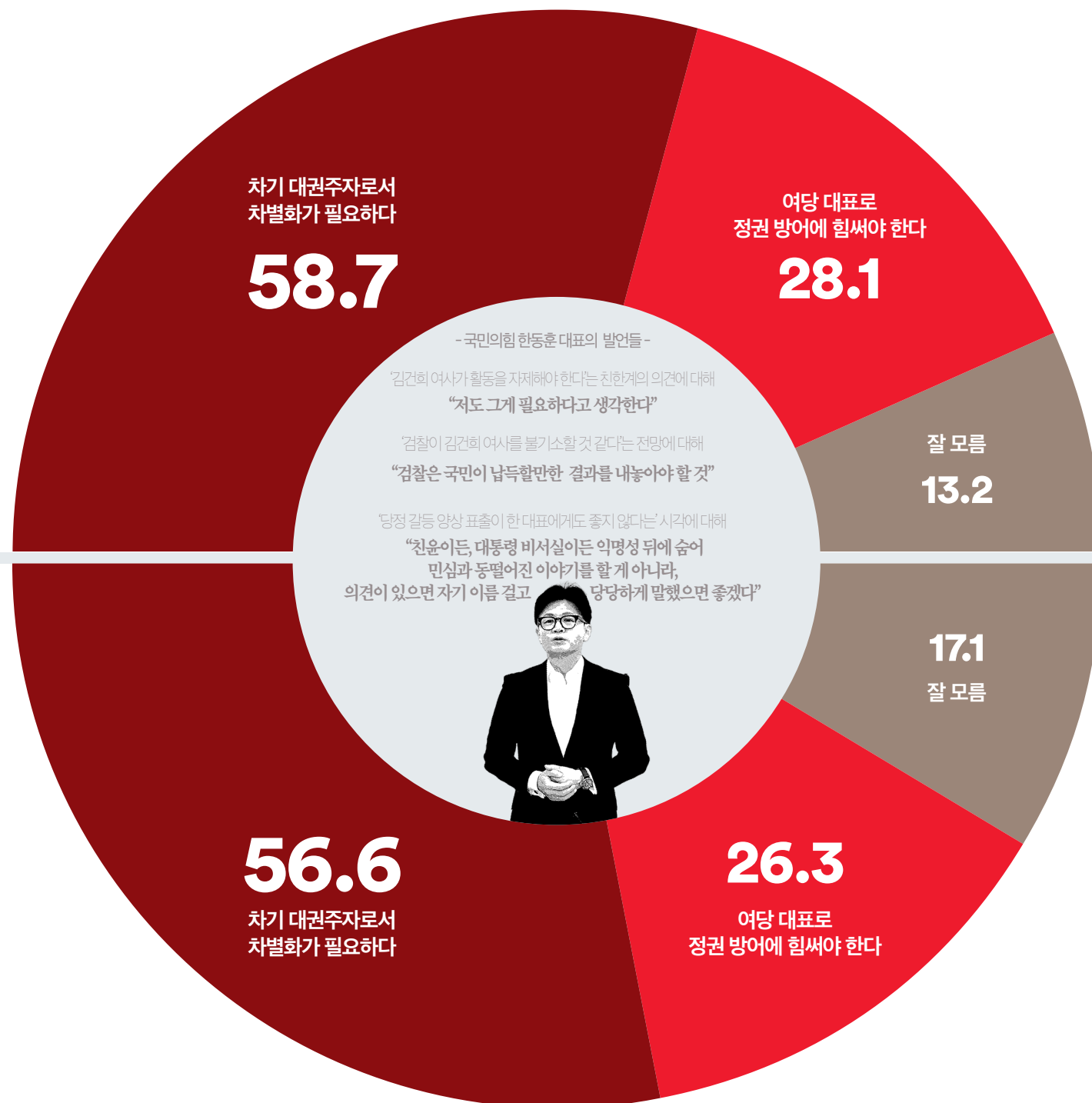
명태균 씨의 주장 | 대통령실의 입장 | 잘 모름

Q.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친한계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과 연쇄 회동하며, 김건희 씨의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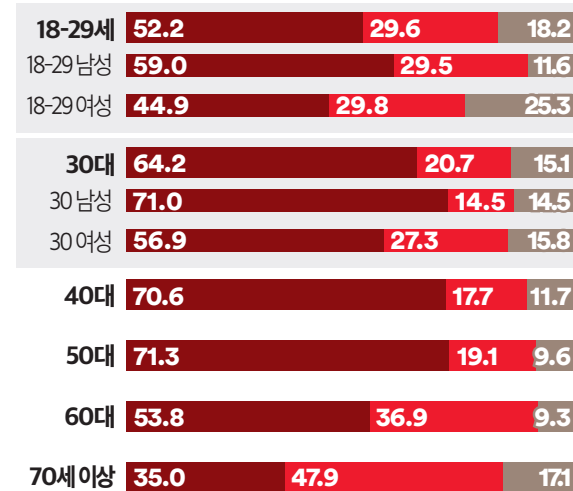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한동훈 대표는 차기 대권주자로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응답간 격차: CATI 30.6%p, ARS 30.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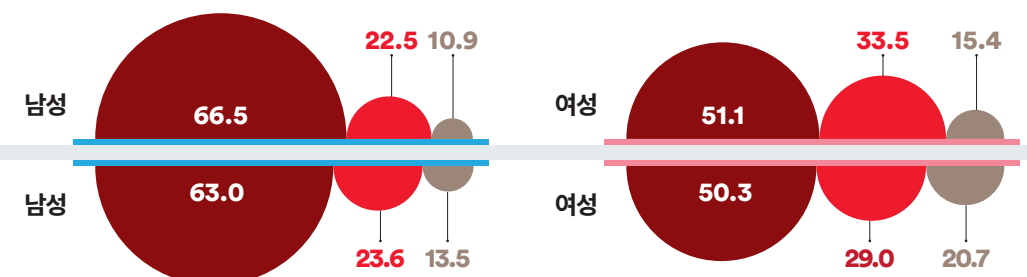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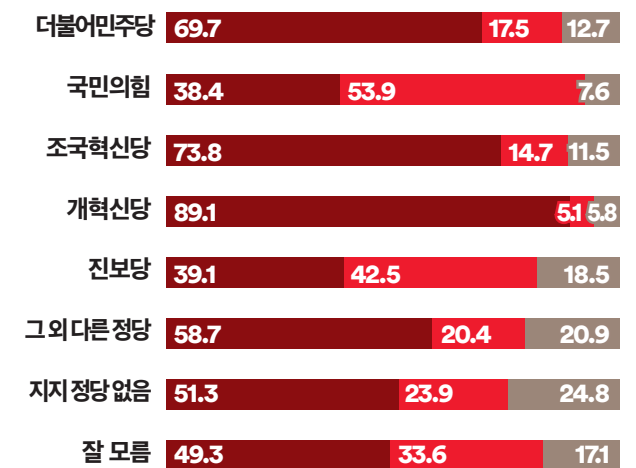
두 조사의 모든 권역, 60대 이하 응답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차기 대권주자로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정권방어에 힘써야 한다'는 응답 우세(응답간 격차: CATI 15.5%p, ARS 16.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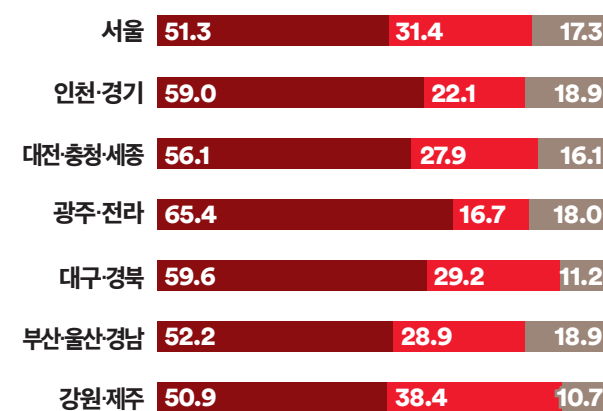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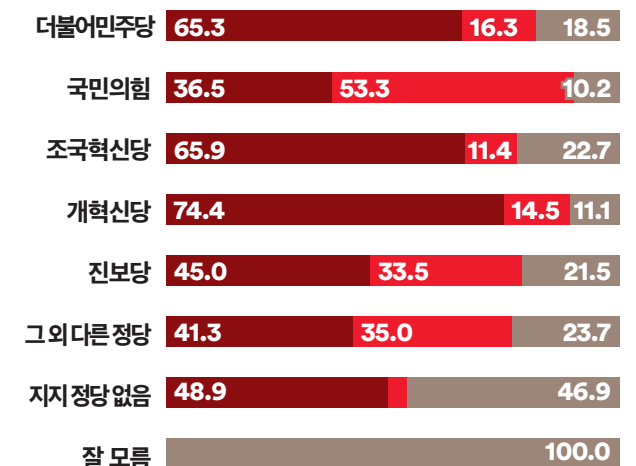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권역



정당지지도



차기 대권주자로서 차별화가 필요하다
여당 대표로 정권방어에 힘써야 한다
잘 모름



Q. 대통령이 김건희 씨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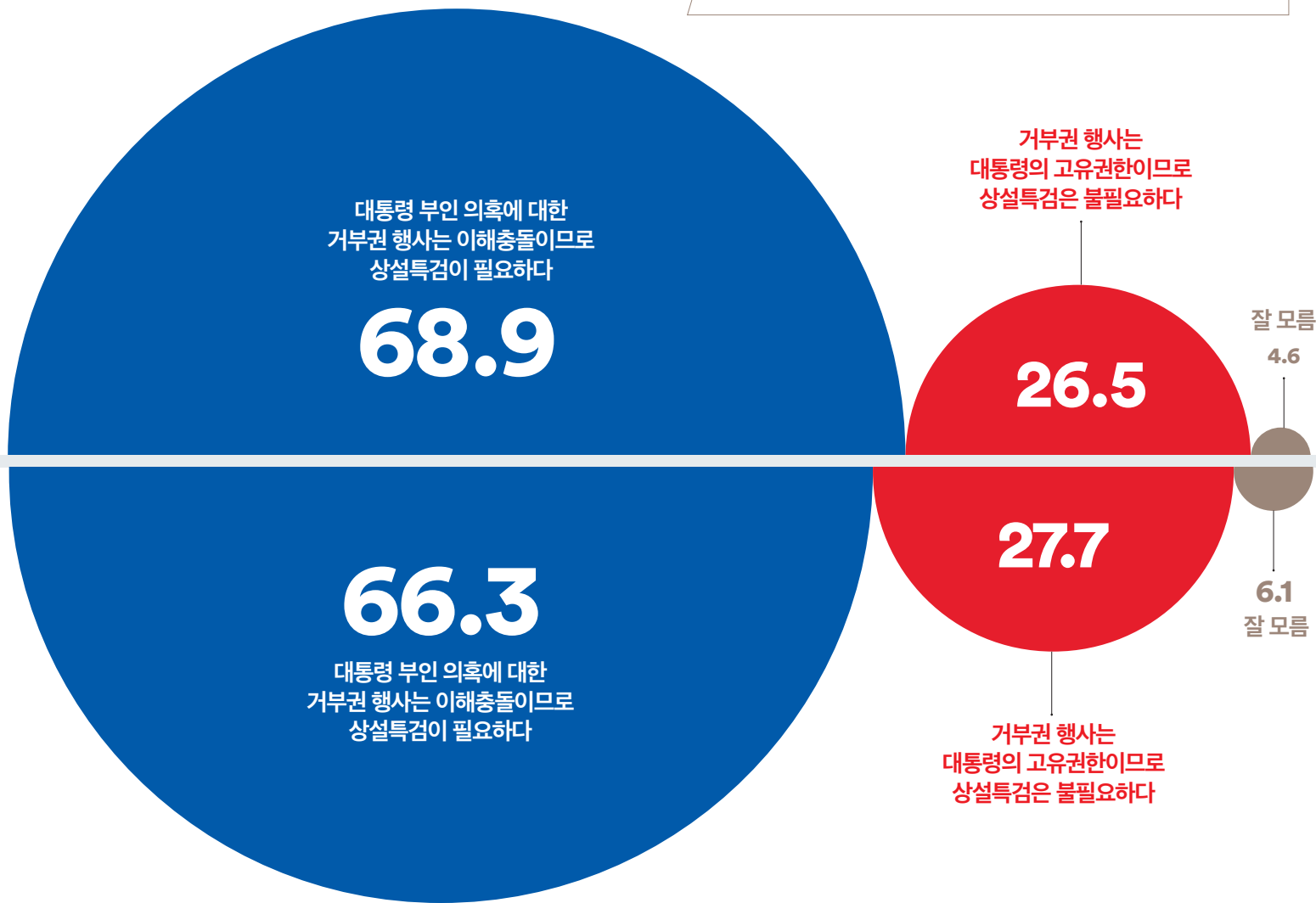
“대통령이 김 여사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
“상설특검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
“상설특검은 활동 기간이 60일로 짧지만
별도의 입법 과정 없이 즉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
[2024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의원 발언 중]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당이 고집하는 상설특검은 오로지 정쟁을 위한 수단”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민주당의 특검 폭주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 추진에 대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발언]

ARS



10명중 6-7명은 '상설특검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고 응답(응답간 격차: CATI 42.4%p, ARS 38.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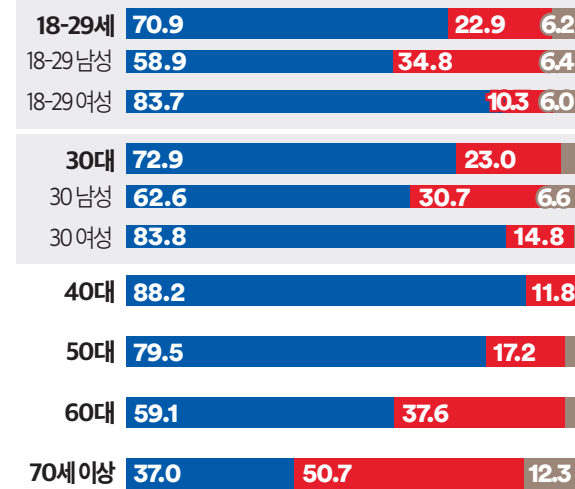
CATI조사는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 ARS조사는 모든 권역에서 '필요하다'는 응답 우세

모든 성별과 60대 이하 응답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도 '필요하다'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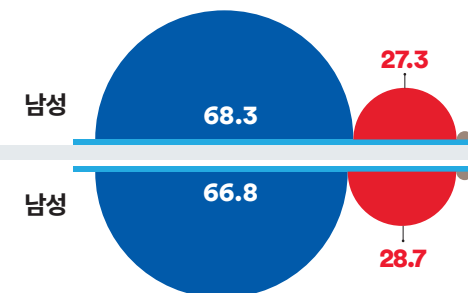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불필요하다'는 응답 우세(응답간 격차: CATI 49.8%p, ARS 69.2%p)

보수층에서도 '불필요하다'는 응답 앞서거나 우세 (응답간 격차: CATI 16.2%p, ARS 14.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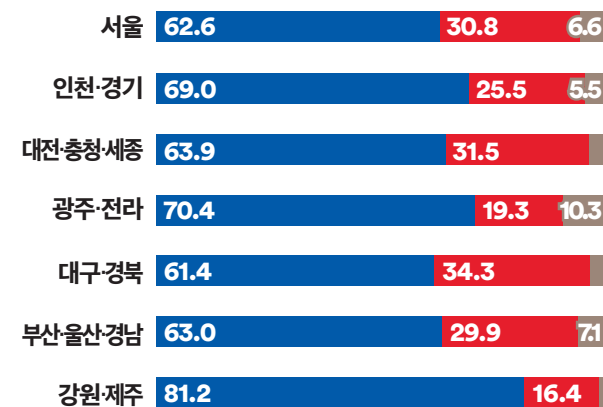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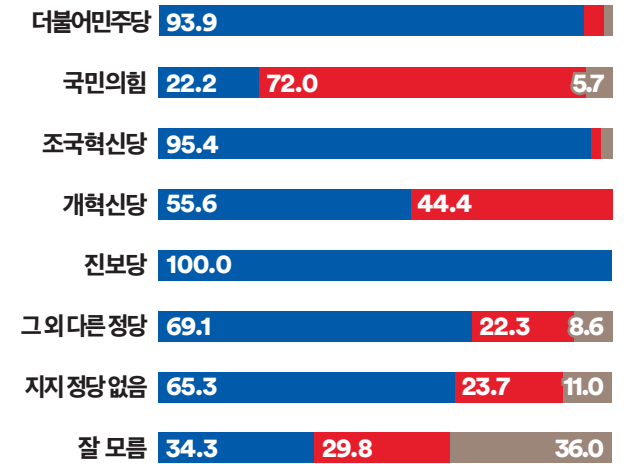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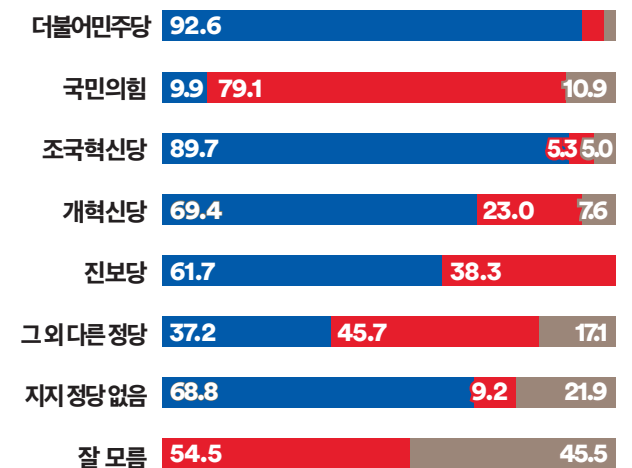
권역



정당지지도



정당지지도



상설특검이 필요하다 상설특검이 불필요하다 잘 모름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410_05
